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벧전 2:3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일 예배 2026년 5월 3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주 은혜를 받으러 / 찬송가 39(신) 39(구)

*성서 교육 / 성서 교육문 29번(시편 65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찬송가 214(신) 349(구)

기도 / 최명희 권사

성경 봉독 / 베드로전서 2장 1-5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우리도 산 돌이 되어야 합니다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찬송가 407(신) 46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빈 들에 마른 풀같이 3,4절 / 찬송가 183(신) 17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신앙은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매일 깨어 있는 '거룩한 긴장'입니다. 먼저 우리 안의 시기와 가식을 털어내는 영적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그 비워진 자리를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어울리는 존재로 자라납니다. 2. 우리가 붙든 예수님은 세상에선 버려진 돌 같았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기초석(산 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 위에서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갑니다. 내 고집을 꺾어내며 지체들과 어깨를 맞추는 수고는, 영원한 나라의 조각이 되어가는 기본 좋은 과정입니다. 3.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즉 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나라와 우리는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의 신비 속에 거하며,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함께 살아갈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설교 요약

끝까지 남는
것은
이것, 말씀

벧전 1:17-25

우리는 매 순간 코람데오(Coram Deo), 즉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신앙은 신선함을 잃고 관성적인 익숙함 속에 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긴장'을 유지하는 역동적인 생명력입니다. 이 긴장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로 경험하는 것들은 결코 영원한 소망을 담보해주지 못합니다. 소망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하늘의 공급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자, 순전한 믿음의 분량으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바를 확증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영원의 신비가 오늘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말씀이 영원히 끝까지 남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질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과 변치 않는 주의 말씀분임을 고백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이번 금요일 17장 공부합니다).
5. 다음 주일, 5월 10일 어머니 주일입니다(바베큐 파티 있습니다).
6. 각 전도회 모임이 5월 31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있습니다.

5월 예배위원

안 내	한규철		조은영		
기 도	최명희(3)	최상천(10)	조은영(17)	박래석(24)	한정임(31)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벧전2:5)

잔잔한 새벽의 빛이 창가에 머무는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듯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산 돌'로 다듬고 계십니다. 돌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돌'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의 뜻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혼자 완성되는 구조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맞물리며 세워지는 공동체적 건축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모양이 맞지 않는 돌처럼, 어디에도 끼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결을 이미 아시고, 가장 적절한 자리에 두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선택, 관계, 심지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가 됩니다.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때로는 깎이고, 때로는 옮겨지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인도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함께 세워짐'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